



심석희가 왼쪽 발 봉와직염으로 2015~2016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6차 대회에 불참한다. 스포츠동아DB

심석희 '봉와직염' 월드컵 잠시 휴식

왼쪽 발 염증 치료...5·6차 대회 불참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18·세화여고)가 잠시 심표를 짝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31일 “심석희가 좌측 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5~2016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2월 5~7일·독일)와 6차 대회(2월 12~14일·네덜란드)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29일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던 도중 왼쪽 뒤꿈치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다음날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봉와직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당분간 스케이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소견에 따라 31일 국가대표팀과 함께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석희에게는 오히려 골뎀 같은 휴식이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월드컵 1차 대회부터 시작해 12월 열린 4차 대회까지 전역 질주했다. 성적도 뛰어났다. 1차 대회 3관왕(여자 1000m 2차 레이스·1500m·3000m 계주)을 시작으로 올 시즌 출전한 총 4번의 대회에서 금메달 8개(개인전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월드컵 5차 대회를 앞두고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심 없이 스케이트를 타다보니 봉와직염에 걸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5·6차 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올 시즌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던 차에 갑작스러운 부상이 달갑지 않은 않지만, 몸을 추스르면서 3월 11~13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2016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보전전을 위한 일보후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왼쪽 3번째)와 남유진 구미시청(왼쪽 2번째)이 29일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스포츠토도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 구미시와 연고지 협약식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와 구미시가 29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사진)에는 손준철 케이토토 대표를 비롯해 남유진 구미시장, 손준석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은 올해부터 2년간 구미를 연고지로 삼게 됐다.

손준철 대표는 “이번 연고지 협약식을 통해 케이토토와 구미시청은 국내여자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이 구미의 명성은 물론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위상까지 함께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창단 때부터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손준석 감독도 “훌륭한 체육환경을 자랑하는 구미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 크다”며 “재미있는 경기와 좋은 성적으로 여자축구의 매력과 구미시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GC 오세근(오른쪽)이 3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SK와의 홈경기 도중 수비를 피해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70-66으로 이긴 KGC는 3위 KCC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출전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인해 김승기 감독은 한숨을 지었다. 안양 | 김충현 기자 won@donga.com

스톡스 8블록슛...삼성생명, 3연승 질주

스톡스 15리바운드...골밑 완벽 장악 삼성생명, 3위와 0.5게임차 단독 2위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의 상승세가 무섭다. 삼성생명은 31일 구리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6라운드 KDB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골밑을 단단하게 지킨 키아 스톡스(8점·15리바운드·8블록슛)의 활약에 힘입어 56-50으로 승리했다. 3연승을 달린 삼성생명은 14승12패로 KEB하나은행(13승12패)에 0.5게임차 앞선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삼성생명은 리그에서 우리는행 다음으로 좋은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삼성생명의 평균 득점은 61.8점, 평균 실점은 61.7점이었다.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낮추는 것이 삼성생명의 승리 방정식이다.

삼성생명이 실점이 적은 수비능구를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스톡스의 존재에 있다. 스톡스는 평균득점이 9.8점으로 10점이 채 되지 않지만, 삼성생명에 안정적인 리바운드와 위력적인 블록슛을 제공하고 있다. 앞 선이 뚫려도 골밑에 스톡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으로서도 공격이 쉽지만은 않다.

이날 KDB생명전에서도 스톡스의 위력은 확실했다. KDB생명은 56개의 2점슛 중 18개만 성공(32%)시켰다. 특히 스톡스의 매치업 상대였던 센터 비키 바흐는 10개의 슛 중 고작 2개만 득점으로 연결했다.

경기당 61.8점을 올리던 KDB생명의 득점을 스톡스를 앞세워 50점대로 떨어트리는데 성공한 삼성생명은 4쿼터 초반 KDB생명에게는(7점·5리바운드·7어시스트), 한체진(15점·3리바운드)에게 3점슛을 허용하며 잠시 역전을 허용했지만 고야라(10점·6리바운드), 배혜윤(6점·4리바운드)의 득점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삼성생명은 특유의 ‘저실점 농구’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KDB생명은 시즌 20패째(6승)를 안았다.

정지욱 기자

KCC 추격 나선 KGC 오리온 발목 잡은 LG

KGC, SK 꺾고 3위 정조준

4쿼터 막판 자유투 득점으로 승부 갈려 길렌워터 26점...LG, 2위 오리온 격파



KGC가 SK를 힘겹게 물리치고 3위 KCC 추격에 나섰다. KGC는 3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6라운드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SK를 70-66으로 꺾었다. KGC는 27승19패로 3위 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접전 끝에 거둔 승리, 그러나...

KGC는 올 시즌 내내 SK를 상대로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이날 경기 전까지 KGC는 SK와의 5차례 맞대결에서 3승2패로 단 1승을 앞섰는데, 1라운드(76-62 승)를 빼면 쉬운 경기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65-81로 완패하기도 했다.

KGC는 31일에도 어김없이 SK를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4쿼터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경기가 펼쳐졌다. 접전이었지만, 승부처인 4쿼터 경기 내용은 출전이였다.

KGC로선 그나마 자유투가 보약이었다. KGC는 4쿼터 16개의 자유투를 얻었는데, 성공은 7개뿐이었지만 대부분이 승부가 가려진

4쿼터 막바지에 나왔다. KGC는 63-63으로 동점을 이룬 4쿼터 막판 5분간 7점을 올렸는데 이중 필드골은 마리오 리틀(23점·5리바운드·4스틸)의 골밑슛(2점)뿐이었다. 나머지 5점은 모두 자유투로 쏘았다.

SK는 그나마 자유투 득점도 얻지 못했다. SK는 경기 종료 5분간 3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SK는 종료 20여초를 남기고 66-69로 뒤진 상황에서 공격권을 얻어 동점을 노렸지만, 최원혁의 트래블링이 나오면서 허무하게 기회를 날렸다. KGC 김승기 감독은 승리하고도 출전에 마음이 불편했다. 김 감독은 “경력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6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것에만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LG, 오리온에 고춧가루 폭탄 뿌려

창원에선 LG가 갈 길 바쁜 오리온의 발목을 잡았다. LG는 창원체육관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오리온에 91-73으로 대승을 거뒀다. LG는 트로이 길렌워터(26점·8리바운드), 김영환(26점·4리바운드·6어시스트), 김종구(14점·10리바운드·6어시스트) 등이 고르게 활약하면서 오리온의 수비를 무너트렸다. 전날 고양에서 모비스에 75-80으로 석패한 오리온은 피로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했다. 오리온(29승17패)과 선두 모비스(30승15패)의 격차가 1.5게임로 벌어졌다.

안양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제스퍼 존슨 쇼크...연패 빠진 오리온

kt, 심스 무릎 부상으로 존슨 대체 영입 오리온, 헤인즈 복귀 불발...2연패 타격

오리온이 ‘제스퍼 존슨 해프닝’에 올랐다.

남자프로농구 오리온은 29일 애런 헤인즈(35)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스퍼 존슨(33·사진)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지난해 12월 25일 발목 부상을 당한 헤인즈는 부상공시기간(5주)을 다 채우고 30일 모비스와의 홈경기부터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헤인즈의 회복세가 너무 더뎠다. 헤인즈는 부상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러닝조차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오리온은 존슨의 일시대체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KBL 규정상 1경기를 쉬어야만 했다. 오리온은 30일 모비스와의 맞대결이 정규리그 1위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존슨으로 완전교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완전교체시에는 존슨이 모비스전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존슨은 더 이상 오리온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kt가 오리온의 앞을 가로막



았기 때문이다. kt는 28일 삼성전에서 센터 코트니 심스가 무릎 부상을 당해 당장 뛸 수 있는 교체선수가 필요했다. kt로선 존슨 만한 대체선수가 없었다.

KBL은 대체외국인선수 1명을 복수의 구단에서 영입을 원할 경우, 직전 시즌 후순위 팀이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시즌 오리온은 5위, kt는 7위였다. kt는 30일 KBL에 존슨에 대한 가승인 신청을 했고, 결국 존슨은 오리온이 아니라 kt에 합류했다. 오리온은 헛물만 켜고 말았다.

오리온으로선 존슨을 잃은 타격이 너무 컸다. 오리온은 모비스전에서 조 잭슨의 30점 활약에도 불구하고 75-80으로 패했다. 이 타격은 31일까지 이어졌다. 모비스전에서 온 힘을 다 소진한 오리온은 31일 LG에도 무기력한 경기 끝에 73-91로 대패했다.

오리온은 헤인즈가 부상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잭슨 1명만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오리온 추일승 감독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제스퍼(존슨)가 없는 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지욱 기자



삼성생명을 3연승으로 이끈 일등공신은 외국인선수 키아 스톡스(오른쪽)다. 스톡스는 31일 구리체육관에서 벌어진 KDB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블록슛 8개로 맹활약했다. 사진제공 | WKBL